민주당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 '촉각'…6~7명 거론

광주 이용빈·양부남·민형배, 전남 주철현·서삼석 의원 등 현직 의원 vs 원외, 광주 인사냐, 전남 우선이냐 안갯 속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권 유일 주자였던 송갑석 의원이 낙마하면서 대신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기용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진영이 지도부를 휩쓴 상황이어서, 통합과 포용 차원에서 비이재명계 인사를 끌어안을지, 아예 현역이 아닌 원외 인사를 지목할 지도 관심사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이끌 9명의 지도부 중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제외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인선작업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 대표가 직접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는 호남 몫, 특히 광주·전남 출신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게 중론이다.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는 수도권 일색 지도부에 대한 지적에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호남을 포함해 지방을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호남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대략 6~7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안정적 당권 유지를 위해 친명 인사가 우선 유력시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이용빈(초선, 광주 광산갑),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민형배 의원, 전남에서는 주철현(초선, 여수갑), 서삼석(재선, 영암·무안·신안) 의원,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캠프 대변인을, 양 전 고검장은 법률지원단장을 각각 맡았다. 양 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복당 여부와 맞물려 지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당대표 경선까지 시종 이 대표를 지지해왔고, 서 의원은 지난해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으며 대선 과정에서 수석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다. 최 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최초 4선(選) 기초단체장에 오른 바 있다.

이밖에 포용과 통합, 다양성 차원에서 송갑석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당내 반발과 함께 민심이 수용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탕평 인사로 청년 정치인을 지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이번에는 전남 인사를 우선 지명한 뒤 다음에 전북, 광주 순으로 호남권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원내 현역의원과 출마 예정자는 제외시킨다는 당내 기류도 있어 누가 최종 낙점을 받을 지는 안갯 속이다.

최이슬 기자

尹 대통령, 李와 통화… "빠른 시간 내 만날 기회 만들자"

尹, 평산마을 방문 묻고 李, 경호범위 확대에 감사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통화해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기간부터 밝혀 온 영수회담 제안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다. 접견은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이 정무수석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날 통화는 윤 대통령이 원해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길 원한다고 했고, 3분 정도의 통화가 성사됐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대표는 감사하다고 답하며 민생입법 관련해 서로 협조하자는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한 것을 알고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사저 인근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 어제 가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다 등의 답변을 건넸다.

또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간 입장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이 상황에서 나온 것 같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 없이 만나면 좋겠다',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언했고, 이 정무수석은 "영수회담이란 표현은 안 썼다.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다. 날짜는 안 정했고 '유능 당 대표 만남'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통화가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갑자기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 조율은 없었고 깜짝이라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추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선 "다음에 어떻게 할 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尹, 가족센터 방문 "정책 타깃 '가족'에 맞춰 지원…의미있고 아주 훌륭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동 육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아이들과 함께 그림동화책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가족과 가정을 정책의 타깃으로 삼아 국가가 국적과 상관 없이 부모가 하기 어려운 역할을 도와주고 큰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찾아 "다문화·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단계별 지원, 상담 교육 돌봄 등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연간 4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에 한정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족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움틈학교(대안교육시설)' 등 가족 지원 현장을 참관하고 "아이와 부모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정을 타깃으로 해 도운다는 건 참 의미있고 아주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잘되려면 가정이 돌아가야하고, 가정이 잘 돌아가려면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며 "가족과 가정을 정책 타깃으로 삼아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니 국가 예산이나 지원이 현장에서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센터 이용에 불편한 점, 좋은 점 등 자세하게 격의없이 설명해주면 우리 대통령실 참모들, 관련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제도들을 강구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보는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 취약가족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최근 화두로 제시한 '약자 복지'의 일환이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